제3장 여건변화의 전망

1. 대내외 환경변화

1.1 외부환경 변화

▮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시대 가속화

○ 세계화와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광역경제권 단위의 지역경쟁력과 광역경제권 내 중심도시의 경쟁력으로 크게 구분되어지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

○ 또한 정보화, 탈산업화, 탈국가화 등의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지방분권화와 탈조정화(Deregularization) 현상이 발생

○ 세계화는 인력·자본·기술 등의 급격한 이동을 수반하며 국경을 초월한 도시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교통·정보통신의 발달과 자유교역의 증가 등을 통해 지역 또는 도시단위에서 세계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전

- 지역과 도시들의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과 교류 활성화
- 세계적 도시 브랜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도모

▮환황해권의 부상과 서남해안 개발 가속화

○ 중국의 성장으로 한반도 서남해안의 발전 잠재력 향상 및 개발촉진 예상

○ 호남권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계획으로 새로운 거점 형성 가능

- 새만금,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, 서남해안개발, 기업도시조성, 혁신도시건설 등 광양시가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위협요인 공존

○ 광양시는 서남해안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국과 아시아를 겨냥한 경제·문화·관광 등 산업육성 전략 필요

▮기후변화와 저탄소, 녹색사회 도래

○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용화 확대

- 태양, 수소, 풍력, 조력, 지열,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 활성화

○ 가정이나 기업, 공공시설 모든 조직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실천이 확대

○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과 탄소를 흡수하는 녹지조성, 그리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술과 산업의 육성 필요

▌저출산 고령사회의 영향

○ 저출산에 따른 생산노동력 부족과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약화될 우려가 높음

○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부담문제 야기

-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.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, 2020년에는 4.6명, 2050년에는 1.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어 노인부양비 급증현상 발생

○ 거동 불편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·요양시설 등 종합적인 케어시설의 증가

○ 노화에 대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화관련 건강의료산업, 노인 친화적인 산업, 사회서비스산업 등이 성장

○ 건강한 삶을 추구함에 따라 의료·건강·여가·음식 등 관련 산업 성장

○ 노령인구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예산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크게 받고, 또한 노인복지여건에 따라 향후 지역발전 좌우

▌수도권 집중심화에 따른 지방의 성장잠재력 저하

○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블랙홀 작용으로 지방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악순환 구조

- 국토면적의 11%, 인구 48%, 100대 기업 본사 91%, 공공기관 85%, 금융기관 67%가 수도권으로 집중

○ 초고속 교통시설이 확충되면 수도권의 세력이 확대되어 수도권 포섭현상 발생

○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방 대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

○ 수도권과 차별화 된 광양의 독창적인 발전모델을 창출하고, 광역도시화, 광주·전남 경제통합 등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적 광역발전전략 추진 필요

▌호남광역경제권의 발전 전망

○ 호남광역경제권은 광주대도시권, 전주광역도시권, 목포광역도시권, 새만금권, 광양만 광역도시권, 지리산·덕유산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문화예술과 친환경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만들고, 이를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 거점 육성, 문화예술과 해양생태관광 육성, 지식창출기능 고도화, 통합인프라 구축, 녹색공동체 조성 등을 추진

○ 광양만광역도시권은 기간산업과 친환경부품소재 산업 중심지로 개발

▮ 섬진강 일대 '동서화합·창조경제 거점'으로 조성

○ 영호남이 경계를 마주하는 섬진강 양안을 문화·관광지대, 신성장산업 벨트 등으로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확정(2013.12)

○ 산업육성, 문화교류,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섬진강 양안의 경남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(대통령 지역공약 8대 핵심정책에 포함)

1.2 내부환경 변화

▮ 인구증가의 둔화로 인해 인구정체 위기

○ 광양시의 인구증가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우려되며,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문제 대두

○ 2009년~2011년의 인구증가율은 5.1%에 비해, 2011년~2013년의 인구증가율은 0.6%로 감소

▮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원화

○ 원도심(광양읍)과 신도심(중마동)의 이원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 발생

○ 지역간 경쟁 및 NIMBY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통합이 저해되고, 사회기반시설 계획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

▮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저조

○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여, 도시성장의 정체현상이 발생하고,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하됨

○ 또한,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의 축소, 투자의 감소 등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야기됨

▮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접근성 증대

○ 이순신대교, 경전선, 남해고속도로 등 입체적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타지역에서의 접근성 증대

○ 광역교통망 개선, 여수엑스포 개최, 순천정원박람회 개최 등의 파급효과로 광양시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, 관광활성화 및 통행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수~순천~광양시를 연계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필요

▮ 농촌인구의 감소 및 부농의 확대

○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,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로 인해 부농이 확대되고 있음

1.3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

▌평면적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

○ 단기간의 급격한 도시화 진전으로 무분별한 평면적 확산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,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성장관리(Growth Management), 스마트 성장(Smart Growth), 뉴어바니즘(New Urbanism), 콤팩트한 도시개발, 재해관리가 도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정착

○ 성장관리는 특정지역에서의 개발과 성장을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개발수요와 환경용량을 조화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정책적 수단임

▌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재생

○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도시경쟁력 강화와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

○ 거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 및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테마거리 등 문화공간 마련, 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상업·문화거점 조성을 적극 추진

○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고유의 건축양식을 개발하고,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가로경관 정비, 상업정책 등 소프트한 정책과 보행자 동선 정비, 교통수단의 접근성 향상 필요

○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주민이나 사업자 등의 발의를 존중하고 관련 주체와의 충분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형성·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 기대

▌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개발

○ 탄소저감형 도시시스템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도시적 차원의 노력을 의미

○ 탄소저감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도시·마을차원의 탄소저감 방안을 마련·추진

○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으로 정책과 제도, 설비 등 구조적인 접근과 생활양식 전환에서부터 녹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, 열섬효과 완화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수요 감소,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탄소를 저감하고 흡수하는 다양한 계획·기술의 발굴과 실용화 필요

○ 녹색성장(Green Growth)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면서 경제적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수준 유지

○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패러다임임

○ 대중교통지향형 개발방식(TOD, Transit-Oriented Development)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에 부합한 개발방식임

- 철도역 등의 주변 보도접근이 가능한 반경 400-800m에 대중교통중심의 근린지역을 형성
- 터미널, 역 인근의 도심지구를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추구하고 외곽지역에는 저밀도의 개발 추진

▮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과 정체성 강화

○ 도시정체성은 도시활성화를 위한 기초요인으로 지역의 애착심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며 도시의 경제적·사회적·역사적·문화적 자산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축적되는 특성이 있음

○ 도시정체성은 도시디자인의 형태로 구현되며, 조형성과 편리성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·지역 환경을 조성

○ 특히 역사를 비롯한 문화, 경관, 산업 등과 같은 분야가 지역에 오래도록 토착화되어 있는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디자인이 차별화되어 있고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유리

▮ 창조도시

○ 창조도시는 도시가 갖는 유무형의 자산을 문화예술과 결합하여 도시를 발전시키려는 도시전략으로, 1980년대 이후 유럽의 도시재생정책에서 주요 전략으로 사용

○ 최근에는 역사문화와 연계한 창조적 도시환경 조성이 도시이미지의 재창출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수단으로 평가

-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, 도시축제나 국제행사를 도시마케팅 수단으로 유치하여 쇠퇴한 도시구조 및 도시이미지 개선 등 도시재생에 활용

○ 창조도시를 추진하는 시 또는 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부문간의 창조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

- 창조적 파트너십이 형성된 지역은 창조도시 전략의 추진과 성공에 근간이 되고, 창조도시전략과 연계한 도시재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

▮ 시민참여형 복지도시

○ 시민참여형 복지도시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도시의 미래비전과 계획·집행에 참여하여 시민욕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지방분권적 도시계획수단임

○ 행·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조직의 설치와 주체별 역할과 내용, 협력 등의 지원조례 제정, 전문가 파견 등의 지원전략 프로그램 마련이 선결

○ 주민참여는 스스로 도시에 대한 관심과 향토애 및 공동체 의식이 고취되고 동시에 책임감과 주민역량을 증대시키는 효과 기대

○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WHO와 Ottawa 헌장, Agenda 21 등을 통해 건강·안전도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